

대중국 지방외교 과제와 전략

목 차

- I.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 II.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III.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 현황
- IV.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 V.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
- VI.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 지방공공외교 연구의 배경

◆ 최근 충남 공공외교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충남 해양건도, 환황해전략 등 충남의 국제외교에 대한 담론이 늘어나고 있음
- 지방공공외교를 둘러싼 다양한 동향이 진행되고 있음:
공공외교법” (2016.8.)제정, 경기도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구상

◆ 충남의 공공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의 관점에서 충남의 공공외교를 재해석,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공외교를 둘러싼 혼선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제공해야 함

◆ 시대적 전환의 관점에서 충남의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1990년대 이래 글로벌 변화 및 충남의 위상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공외교전략 필요
- 충남의 글로벌 위상이라는 시각에서 충남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제시

공공외교법 4일 발효...'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도약 기반 마련

[the300]민관 협력해 총체적 공공외교 펼치도록 기반 조성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입력 : 2016.08.02 19:17

기사 소셜댓글(0) 기사공유 가 + -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2016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단 발대식(한국이 나르
서에서 청년 공공외교단원들이 공공외교 캠페인송 '하이파이브, 코리아(High Five! Korea)'에 맞춰 흥겨
운 물려시위를 선보이고 있다. 캠페인송은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스파이크와 그의 작업팀이 재능기
부를 통해 완성했으며, 음원은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청년공공외교단, 시니어공공외교단, 글로벌 공공
외교 실습원, 글로벌 문화외교 공나무 등 부문별 공공외교단 300여 명은 1년간 민간외교관으로서 다양
한 활동을 통해 정부가 수행하는 전통외교의 빈자리를 채운다. 2016.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I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 01. 지방공공외교의 정의와 범위
- 02. 지방공공외교를 둘러싼 환경 변화
- 03. 환경변화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대응
- 04. 우리나라 지방공공외교의 전환

01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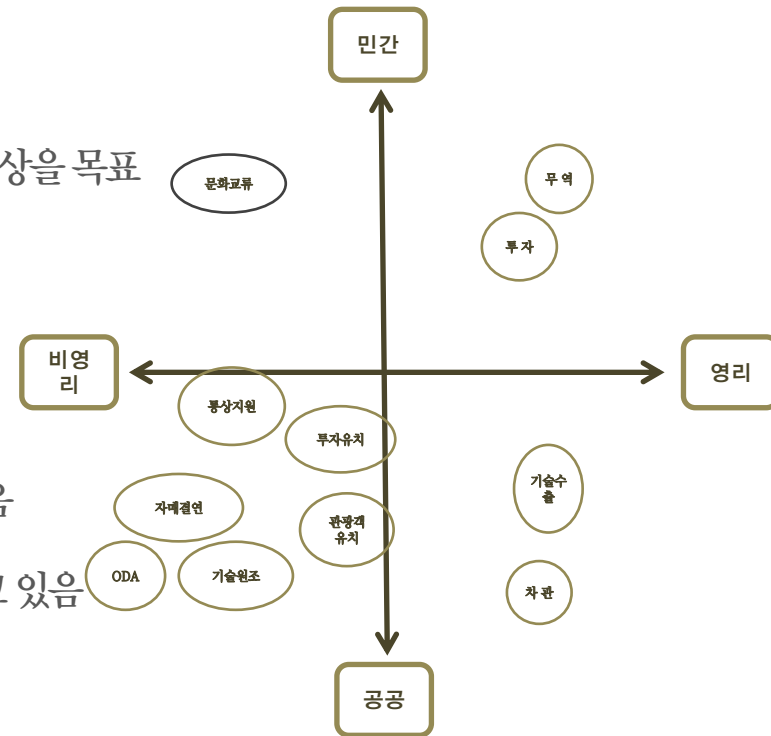
지방공공외교의 정의와 범위①

◆ 지방공공외교는 지방의 공공 부문이 행하는 외교를 의미

- 중앙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지방외교는 주민의삶의질 향상을 목표
- 공공부문의 외교로서 민간 외교와 구분됨

◆ 외교주체의 다원화, 외교방식의 다양화

- 외교가 공공의 독점영역이었으나, 민간비영리단체, NGO 등 주체가 다원화되고 있음
- 외교 방식도 과거에 비영리 성격이 압도적이었으나 현재는 영리적 성격도 강조되고 있음



[그림] 공공외교의 범위

◆ 내용적으로 친선, 교류협력, 통상지원, 남북교류로 대별

- 친선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해지는 것
- 교류협력은 공통의 관심사 또는 목표를 위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거나 공동행동을 취하는 일
- 통상지원은 민간의 통상활동을 촉진 지원하는 것

* 남북교류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음

01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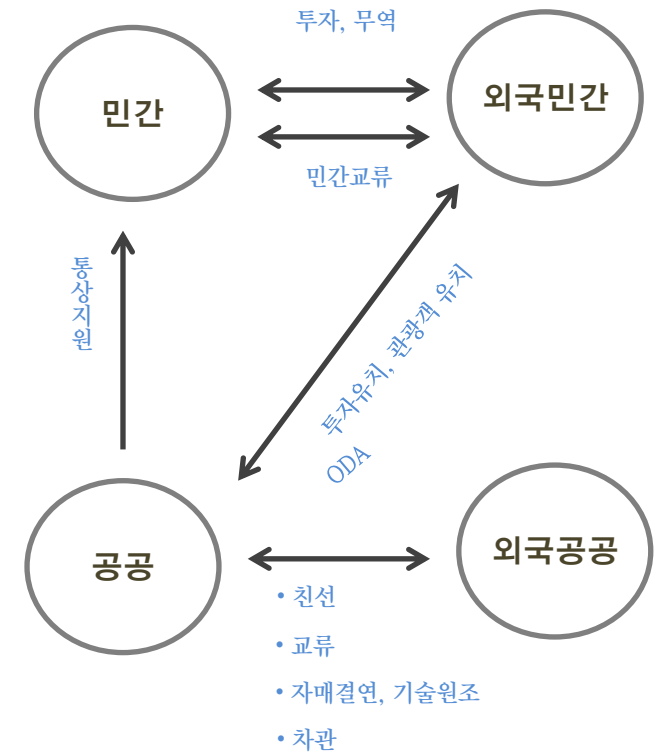
지방공공외교의 정의와 범위 ②

◆ 지방공공외교의 고유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음

- 친선은 인적 교류로서 기본적인 것이며,
- 통상지원은 사실상 민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외교의 고유영역은 아니라는 주장
- * 투자유치, 관광객유치 등의 활동도 외국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지방공공외교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의 관계는 명백하지 않음

- 지방공공외교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가시적이지 않음
 - 논쟁의 여지가 적은 통상지원에 치중 초래
- 지방공공외교가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의 의전용으로 전락하는 사례 발생
 -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



[그림] 주체 간 외교 행위 구분

02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지방공공외교를 둘러싼 환경 변화

◆ 냉전해체에 따른 지방의 국제무대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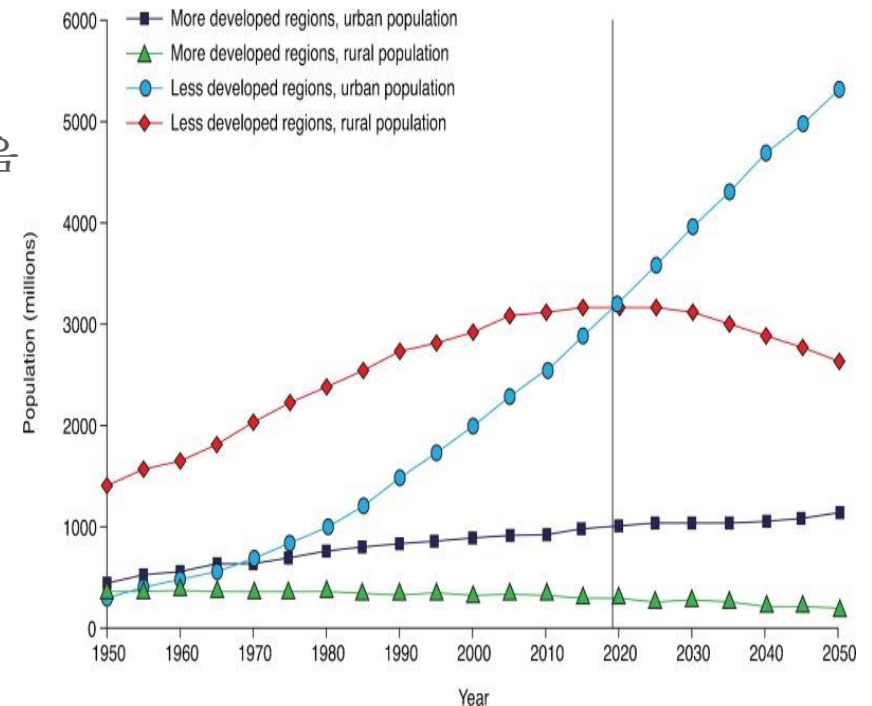
- 냉전시기는 진영논리가 압도적이어서 지방은 국제무대를 벗어나 있었음
- 1990년 구소련 해체 이후 지방이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게 됨

◆ 신흥국의 근대화 물결이 가져온 산업화도시화

-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이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 길을 걸음
- 국가개발정책뿐 아니라 지역정책 노하우에 대한 수요 폭증

◆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방정책시장 형성

- 상하수도, 대중교통, 난방, 전력, 도로, 임대주택 등 분야는 전통적으로 지방공공부문이 담당
- 신자유주의 물결속에서 공공인프라시장(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투융자)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그림] 세계 도시화 추세

출처 :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UN(2012)

03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환경변화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대응

◆ 글로벌 기업들이 공공인프라 및 정책 시장에 진입

- 지멘스는 2012년 IC본부(Infrastructure and Cities)를 신설, 인프라 시장 진출
- GE는 에너지, 교통, 물 시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설정, 대규모 투자

◆ 도시(지역)공공정부 차원의 해외 시장 참여

- 일본 모델: 기술원조, 자매결연 등 비영리사업을 위주로 파트너의 기술과 표준 선점
- 프랑스모델: 해외에서 공공부문이 영리적 활동 전개
- 네덜란드 모델: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상지원을 하며 시장공동진출 방식을 선호

* 무상원조는 신흥국 지역(도시)이 원하는 노하우나 자금을 공급하는데 한계

◆ 국제기구의 대응

- 지방의제 21, 해비태트Ⅱ 등 지구적 문제에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 부각
- 비영리 시민단체, NGO의 중요성



[그림] 도시인프라 사업의 가치사슬 상 민영화 추세 개념 도해

04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전환

◆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 → 선생으로 전환

-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설립(1991)
- OECD 가입(1996년) 이후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
- KDI가 개도국에게 개발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KDI School 개설(2004)

◆ 지방정부의 외교 드라이브

- 포항시, NEAR 사무국 유치(2005); 인천시, GCF 사무국 유치(2012); 서울시, MITI 연수원 유치(201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외시장 진출 (2012)
- 인천시, 중국 텐진시 국유기업CEO 연수프로그램 운영(2014)

그림1 브루나이 PMB성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계약 (2012년 8월)



그림2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사업 1차 사업 준공 (2014년 2월)



[그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해외진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報道資料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배포일시	2014년 월 일()	총 8매	
배포 기관	인천발전연구원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2)260-2671(김수한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032)260-7733(김현수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원)
보도일시	2014년 8월 21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중국 텐진 국유기업 연수프로그램 진행

- 8.24~8.29 중국 기업인 대상 강좌 및 현장수업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갑영)은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중국 텐진시 국유기업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중국 텐진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와 텐진사회과학원의 의뢰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에는 이자즈(尹家智) 텐진중앙계약유한공사CEO 등 텐진시 주요 국유기업의 사장, 부사장급 25명이 참가한다.
- 연수프로그램은 한국과 인천 경제·산업 현황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 등의 전문강좌와 현장수업으로 구성된다.

[그림] 인천시 중국 텐진 국유기업 연수 수행

Ⅱ.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01.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변천과정
- 02. 타 지자체의 주요사례와 시사점
- 03.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01 |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변천과정



◆ 내용적으로 초기 교류협력→ 최근 통상지원으로 중심 이동

- 1998년을 기점으로 투자유치를 매개로 하여 대외교류가 통상지원으로 이동
- 교류 대상지역이 유럽, 미국에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무게 중심 이동

◆ 조직상으로 국제통상국(실) 중심으로 국제업무가 운영되고 있음

- 1998년을 기점으로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 업무 담당 * 이전에는 국제통상협력실(1994), 국제협력관실(1996)
- 이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은 주로 통상지원 위주, 타 기능은 보조 역할에 머무름

◆ 도와 시군별 인력 조직 편차가 극심

- 도는 전담조직인원이 33명(2016년)
- 시군은 잘해야 팀 수준임: 시군은 지역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임 ex) 당진시 대외협력팀(5명) vs. 청양군 담당자(0.5명)

충청남도 국제교류 관련 조직의 변천

연도	전담부서	업무분장	인력 (정원)	주요 특징
1994.5	국제통상협력실 (2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계 국제통상계 	11명	부지사직속 독립부서, 일반교류 통상 업무 종합처리
1996.2	국제협력담당관실 (2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계 국제지원계 	13명	기획관리실 산하로 조직변경, 통상업무는 중소기업과로 분리
1997.2	국제협력관실 (3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획계 교류1계 교류2계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변경 충남뉴욕사무소개소 98.1월4개계로확대(국제계획계,아주계,미주계,구주계)
1998.9	국제통상과 (5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획담당 통상협력담당 아주담당 미주담당 구주담당 	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통상국산하로조직변경,일반교류·통상업무통합 충남구마모토사무고개소
1999.9	국제통상과 (5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획담당 국제교류담당 통상진흥담당 투자유치담당 외자유치담당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부서일원화(일반교류축소,투자·외자유치흡수) 충남 상해 상품전시관 개관 2000.8월외자유치담당을투자유치담당으로 흡수통합 2003.1월 통상진흥,투자유치담당 → 통상진흥팀,투자유치팀으로 변경 2004.1월중국지원팀신설
2007.1	국제통상과 (4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획담당 국제교류담당 통상진흥담당 중국지원담당 	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유치담당을투자유치담당관실로분리 2007.9월 국제교류담당에서 일본T/F팀 분리운영 2008.1월 일본담당신설로 5담당 26명 2008.1월 뉴욕무역관을 이전하여 LA통상사무소설치
2008.7	국제통상과 (5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획담당 수출지원담당 농수산물수출담당 국제교류담당 중·일교류담당 	2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수출담당신설 -구미→국제교류(명칭변경),중국+ 일본→중일교류
2009.7	투자통상실 (1담당관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과 투자유치담당관 통상지원과 	5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통상실신설 -수출지원+농수산물수출→통상지원과분리
2010.10	국제통상과 (3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 1 국제교류2 통상지원 	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통상실과경제산업국을경제통상실로통합 국제교류2는중국일본담당
2016현재	기업통상교류과 (6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지원 자금지원 통상지원 구미주 담당 중화권 담당 아주 담당 	3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에서 기업 및 통상지원과 국제교류 권역 별 담당으로 분리 영어권 구미주 담당, 중국/몽골 중화권 담당, 일본 및 서남아·대양주 아주 담당

[표 3-2] 충청남도 해외 자매교류(6) 및 우호교류(20) 현황(2016.8.)

국가명	도시명	결연일자	비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State of Bolivar/)	1997-03-25	우호교류
브라질	상파울루주(state of Sao Paulo/)	2009-04-08	우호교류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County of Misiones/)	2001-05-28	자매교류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outh Australia/)	1999-10-12	자매교류
미국	캘리포니아주(State of California/)	1997-03-20	우호교류
베트남	롱안성(Long An Province/)	2005-06-09	우호교류
일본	구마모토현(Kumamoto Prefecture/)	1983-01-22	자매교류
	나라현(Nara Prefecture/)	2011-10-26	우호교류
	시즈오카현(Shizuoka Prefecture/)	2013-04-30	우호교류
중국	구이저우성(Guizhou Province/)	2014-09-04	우호교류
	랴오닝성(Liaoning Province/)	2010-11-03	우호교류
	산둥성(Shandong Province/)	1995-10-31	우호교류
	상하이시(Shanghai City/)	2008-11-03	우호교류
	쓰촨성(Sichuan Province/)	2008-09-05	우호교류
	옌볜조선족자치주(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2002-04-16	우호교류
	윈난성(Yunnan Province/)	2013-06-07	우호교류
	강쑤성(Jiangsu Province/)	2005-09-27	우호교류
	지린성(Jilin Province/)	2005-09-26	우호교류
	칭하이성(Qinghai Province/)	2014-09-01	우호교류
	허베이성(Hebei Province/)	1994-10-19	자매교류
캄보디아	씨엠렘시(Siem Reap Province/)	2008-06-18	우호교류
독일	바이에른주(Bayern Province/)	1999-05-11	우호교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Saint Petersburg/)	2000-12-13	우호교류
	아무르주(Amur/)	1995-06-15	자매교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Autonomous Republic of Crimea)	2012-09-16	우호교류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Wielkopolska/)	2002-04-26	자매교류

02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타 지자체 지방공공외교의 사례 ①



〈네덜란드 우트레흐트-니카라과 레옹의 공공주택 외교〉

- 우트레흐트와 레옹은 1983년 자매결연 체결
- 1998년부터 레옹은 급격한 도시화로 판자촌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음
- 우트레흐트는 주택부족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레옹은 이를 적용함
- 우트레흐트로부터 받은 초기자금으로 레옹은 미개발부지를 매입, 상하수도, 거리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주민에게 판매함. 판매금으로 다시 대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순환모델 구축
- 신 모델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반드시 해야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모델임

〈영국의 사회적경제 외교〉

- 영국문화원은 2009년부터 글로벌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및 NGO 실무자가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투자기회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기업 관련 영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국내외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영국의 사회적기업 및 관련 조직이 해외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도록 지원
-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변화, 포괄적인 성장,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하며, 영국의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전세계 사람들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함
(출처: www.britishcouncil.org/society/social-enterprise).

02 |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타 지자체 지방공공외교의 사례 ②



◆ 정책 교류 내지 수출을 지향하는 동향 증가

- 서울시, MITI 연수프로그램 운영 (2012)
- 인천시, 중국 텐진시 CEO연수프로그램 조직(2014)
- 서울시, 공공부문의 영리적 해외진출 모색(상수도사업본부, 2012)

◆ 대외협력관계 재정비 노력 시동 중

- 서울시, 기존 국제협력관계를 3개 축으로 정비
- 경기도, 기존 국제협력관계를 유형화하여 정비 계획

* 경기도는 국제교류지역을 비즈니스 중심형, 거버넌스 협력형, 파트너십 개척형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대응정책 수립 중

03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①



◆ 공공외교의 전략적 관점 미약

- 자치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방향성 변화 → 즉흥성, 의전용 만연
- 이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 폄하 →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 공공외교의 통상 편중

- 현 충남의 공공외교는 투자유치, 수출지원, 관광객유치 등 통상지원에 집중
- 통상지원 편중은 공공외교를 통상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형해화
- 통상지원 업무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주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비판 제기
 - 통상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영역으로 이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불합리
 - 통상 관련 의사결정의 관건이 되는 자원이 갖공공에 없는 상황에서는 홍보에 불과함
 - 각국의 지자체와 민간의 관계가 나라마다 달라 호혜성이 미흡

03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②

◆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선

- 초창기 인맥을 통한 외교관계 수립이 시정되지 않은 채 누적
- 친선, 통상, 정책은 각각 다른 파트너 선정 기준이 있음
- 교류형식 즉 자매결연, 우호협력, 일반 협력 간 불균형

◆ 교류 콘텐츠 미비

- 충남은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음
- 충남의 지역정책을 소개하는 행사는 많이 있으나, 이식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음
- 체계화되지 않은 채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교류 진행, 축적 기제 실종

구분	친선	통상	정책
파트너 선정기준	친밀성이 필요한 지역	상호보완성	공통성
주요활동	문화, 스포츠 교류 공무원 교환 근무	중소기업 수출지원, 투자, 관광객 유치	정책 교류 및 협력 공동 행동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적대, 불신 해소에 유효 • 교류의 역사가 짧은 상황에서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주민동의 확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간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성 있음 • 세련된 방식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의 뒷받침이 없으면 적극성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성에 의문 • 경쟁우선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국제외교의제는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정책적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 주민들의 동의확보가 쉽지 않음

[표] 국제교류 지역 선정의 기준 비교

Ⅲ.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 협력 현황 (대중국 교류를 중심으로)

- 01. 시군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 02. 선행연구 검토
- 03. 연구방법
- 04. 연구의 기대효과

01 |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시군별 대중국 교류 협력 현황

◆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 국제교류관계 체결

- 14개 시군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 서천군은 없음

◆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등이 초청·방문 활발

2014.12.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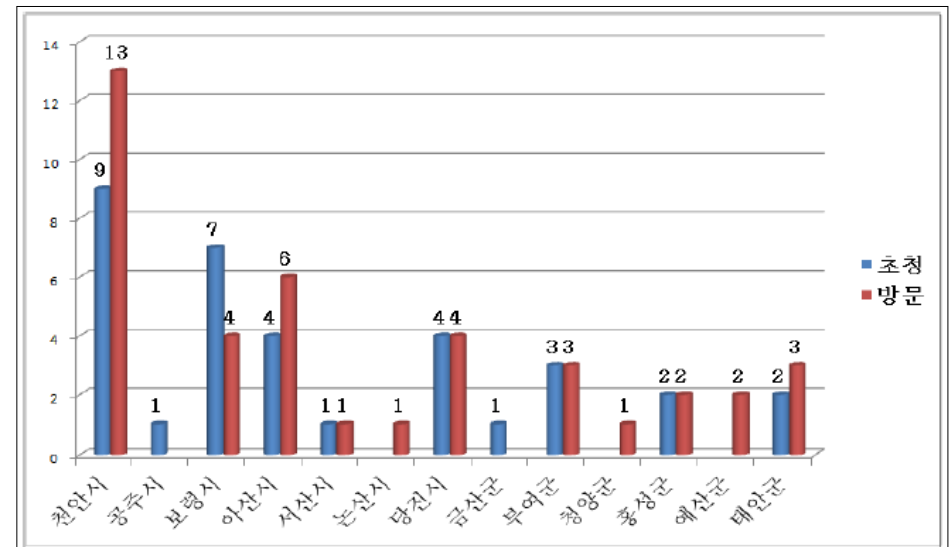
지 역	자매결연	우호협력
천안시	1건, 스자좡시	1건, 원당구
공주시	-	1건, 요령성 심양시
보령시	1건, 상하이시 청포구	1건, 톈진시 빈해신구
아산시	1건, 둥관시	2건, 웨이팡시, 룡청시
서산시	1건, 룡청시	1건, 허페이시
논산시	-	2건, 랴오닝성 진저우시, 허베이성 랑팡시
계룡시	-	1건, 회유구
당진시	1건, 산둥성 르짜오시	3건, 랴오닝성 철령현, 지린성성 왕청현, 산둥성 교남시
금산군	1건, 지린성성 안도현	-
부여군	1건, 낙양시	-
서천군	-	-
청양군	1건, 랴오닝성 등탑시	1건, 후베이성 수현
홍성군	1건, 산둥성 임기시 기수현	1건, 헤이룽장성 해림시
예산군	-	2건, 계동현, 이춘시
태안군	1건, 태안시	-
합 계	10건	16건

주: 지명은 중국식 발음과 한자음을 혼합해서 사용했음.

[표] 충남 시군 대중국 교류관계 체결 현황

출처 :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2014, 충남연구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초청방문 현황 (2012-2014)



[그림] 중국 지방정부와의 초청방문 현황(2012-2014)

출처 :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2014, 충남연구원)

02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지자체와 연계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 민간단체 교류협력(2012-2014)은 분야는 다양하나 행사 관련 초청방문이 많음

- 참여 시군은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홍성군, 논산시에서 실시

◆ 초청 회 당 평균 30명, 방문 회당 30명 규모

- 초청 인원이 방문 인원의 두 배에 달함

◆ 특히 논산시는 민간단체 주도 성격이 강함

- 논산이 유림협회에서 2011년부터 유교문화탐방을 주도
- 이와 관련 논산시의 지원이 있음

지자체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민간단체 교류협력(2012-2014)

구분	지역	단체명	인원(구성)	목적 및 성과
초청	천안	스자칭시 제3외원	4명(의원장 등)	단국대-스자칭시 제3외원 간 의료교류 협약 체결
	아산	중국 동관시	동관시 관광객 80명	온천대축제 개막식참석(2013.10)
		중국 웨이팡시	수광시 관계자 4명	영인농협-수광야채그룹 자매결연(2013.7)
	부여	청년포럼	33명	백제옛길 탐방
	홍성	해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2013)	32명(교사 5, 학생 27)	홍성내포문화축제 공연 및 한민족 자긍심 고취
방문	천안	천안업성고등학교	5명(교장 등)	스자칭시 교육교류 방문
		천안업성고등학교	32명(교사, 학생 등)	스자칭시 제27중학 방문, 홈스테이
	아산	중국 웨이팡시	10명(아산시2명, 영인농협 및 조합원 8명)	수광국제야채기술박람회 참석 및 아산맑은쌀 시식회 개최(2014.4)
		중국 웨이팡시	5명(영인농협)	아산맑은쌀 웨이팡시 수출논의(2013.9)
	논산	유림협회	25명 정도(3년 연속)	공자묘 참배 등 유교문화 탐방

주: 지명은 중국식 발음과 한자음을 혼합해서 사용했음.

[표] 지자체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민간단체 교류협력(2012-2014)

출처 :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2014, 충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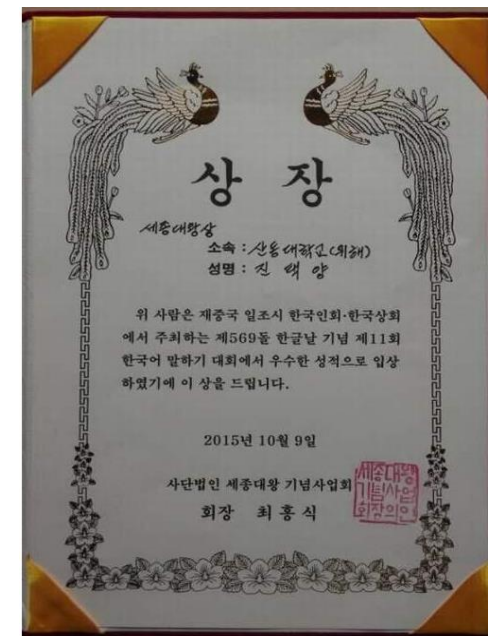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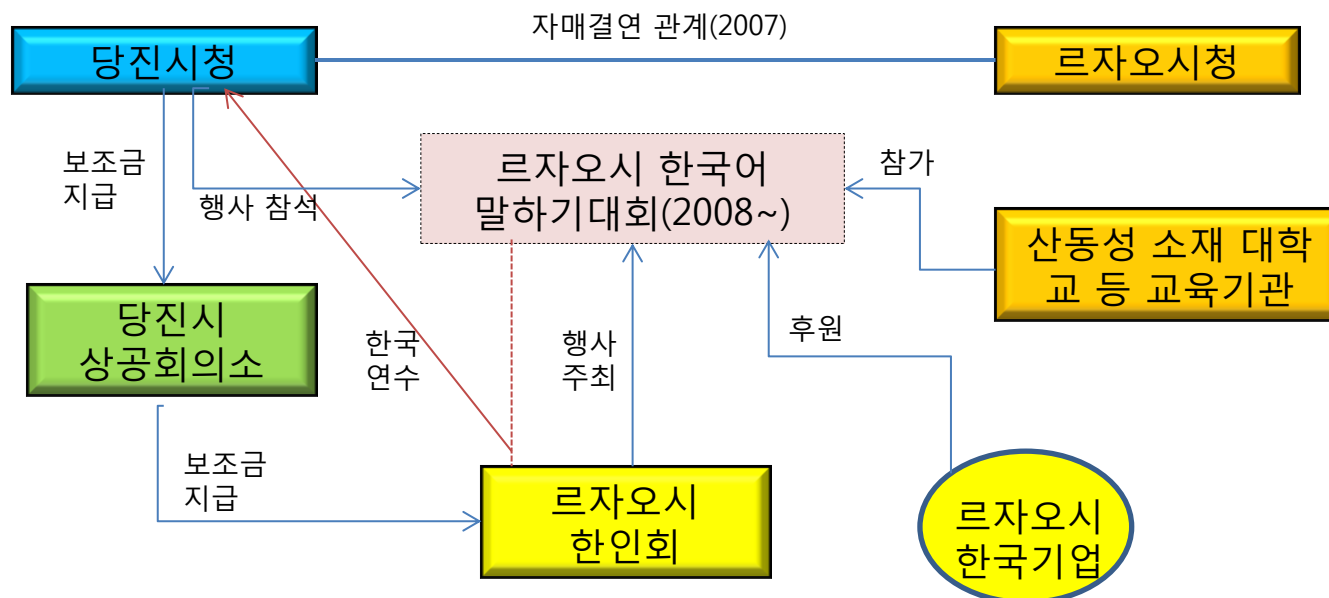
03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민간교류의 대표적 사례 ① 당진시-르자오시

◆ 당진시와 산둥성 르자오(日照)시의 교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매개로 함

- 당진시는 당진시상공회의소, 르자오시한인회와 협력하여 르자오시에서 매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
- 이로 인해 당진시 상공회의소는 대외교류, 르자오시 한인회 및 르자오시 한국기업은 르자오시와 우호적 관계 증대
- 당진시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교류를 수행하며, 민간 교류도 촉진

출처 : 중국산둥대학한국학원, <http://www.korean.wh.sdu.edu.cn/kr/16/lelmexew.htm>

04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민간교류의 대표적 사례 ② 논산시-지닝[濟寧]시

◆ 논산시 유림협의회의 중국 성지순례를 매개로 논산시와 지닝시의 교류협력을 추동

- 2010년부터 논산시 유림협의회는 공자, 맹자의 출생지인 산둥성 지닝시 취푸(曲阜)로 성지순례 시작(2010년)
- 논산시는 당초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공무원이 교류에 참여 → 우호교류협정 체결(2015)

◆ 유림협의회 중국교류는 논산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강력한 콘텐츠 제공

- 지방정부간 공무원 · 청소년 · 민간교류를 더욱 확산하고 있음
- 논산시는 기호유교 관련 대규모 국비지원(충청권 유교 사업)을 신청 중
- 생활유교” 로 컨셉을 설정하여 향후 다양한 관광 콘텐츠 확보 예정



출처 : 논산시청홈페이지

IV.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 01. 지방공공외교의 비전
- 02. 지방공공외교 3.0의 핵심 전략
- 03. 지방공공외교 3.0의 주요 정책
- 04. 지방공공외교 3.0 추진체계

01 |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3.0의 비전

◆ 충남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걸맞은 지방공공외교

- 충남은 지난 20여년의 경제성장 결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신산업지구이자 도농혼재지역으로 변모(홍원표, 2016)
- 학술적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위성형 신산업지구에 해당(송두범, 2015)
- 충남은 지역정책 교류 영역에서 학생 → (교생) → 선생으로 지위 전환

◆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

- 『충남 2030 경제비전』, 환황해전략의 핵심의 성공은 국외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필패
- 충남 일자리의 미래는 서비스업의 발전에 있는데, 국내시장만을 고려하면 서비스업의 발전은 현실성 없음
- 충남은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어 3.0으로 도약해야 함

02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3.0의 핵심 전략



①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

- 기존 공공외교의 즉흥성과 의전성을 탈피, 충남의 국제적 지위 제고에 초점
- 공공외교를 도정의 핵심전략의 일부로서 재정립

② 충남 정책 콘텐츠의 국제화

- 충남 지역정책의 경험과 노하우의 국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자료화, 표준화, 모듈화, 다국어화할 것
- 충남의 정책 노하우를 외국 지자체와 교류·전수할 채널 확보

③ 충남의 국제협력 세력화

- 동아시아에서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 국제적 의의가 있는 분야에서 국제협력 행동 추진

03 |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3.0의 주요 정책

◆ 충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 '공공외교법' 시행을 주도적으로 맞이하고 공공외교정책의 제도화를 도모
- 이를 통해 기존 도 및 시군의 국제자매결연 관계의 재정비 추진

◆ 충남 지역정책의 국제연수프로그램화

- KDI School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충남 지역정책 사례의 연수프로그램화 기반 구축
- 도청, 충남연구원, KDI School, 지역대학, 충남공무원교육연수원 등이 협력하여 연수프로그램 수행(2020년 목표)
- * 장기적으로 도립대학에 공공정책대학원 설립 등 방법을 통해 장기발전방안 모색

◆ (가칭) '아시아 신흥공업지역지자체연합' 구축

- 충남과 글로벌 위상에 공통성이 있는 동아시아 지자체들과 (가칭)아시아신흥공업지역지자체연합(ANIRA) 창설
- 국내 충남, 충북, 중국 허베이, 장수, 일본의 ***을 주축으로 구성
- 초기에는 각 지자체 ThinkTank의 연합을 시작하고, 후에 지자체간 연합으로 발전
- 내용적으로 회원 간 공동의 사업 추진: 국제창업지구 동시 운영, 3농 혁신 사례 공동 발굴 및 표창 등

04 |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3.0 추진체계

◆ (가칭) ‘글로벌 충남 추진단’ 설립

- 도청, 충남연, KDI,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관학연 조직 구성
- 2-3년의 한시조직으로서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자매결연관계 정비, 충남정책 프로그램화, ANIRA창설 기반 구축 등 총괄
-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며, 필요 시 지역대학 총장, 충남연구원 원장과 공동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음

◆ 통상 기능과 국제교류협력 기능의 분리 운영

- 국내외 사례를 보면 통상 기능을 제외하고 정책 교류가 핵심적 영역을 차지
- 지방외교 4.0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 도와 시군 간 협력체 구성

- 도 정책의 대부분은 하위 지역단위에서 구현 → 시군 단위를 떠나면 도 정책은 공허해 짐
- 도와 시군 간 국제교류역량 격차는 심한 편 → 실질적 협력과 역량 격차의 상향평준화 위해 협력체 필요

V.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

01. 지방공공외교 4.0이란?

02. 지방외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01 |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

지방공공외교4.0이란?

◆ 민간이 국제교류의 주체로 부상하고 지방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방외교 패러다임

- 친선(1.0), 통상지원(2.0), 정책외교(3.0)를 포함하면서 국제교류협력 주체로 민간(지역언론,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자리잡는 것
- 지방공공부문은 민간의 국제교류협력의 촉진자와 인도자로서 역할 정립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3. 2(목) 16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7. 3. 2.(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담당과장	정영석(044-203-2561)		담당자	김성겸 사무관(044-203-256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문화교류 진흥 법적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

◆ 지방공공외교4.0의 핵심 추진체계는 국제교류 지방 거버넌스임

- 현재 충남은 지방외교의 주체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음
(대학 따로, 종교단체 따로, 지자체 따로)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장기 플랜과 전략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02

지방공공외교 4.0을 위한 모색

지방공공외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민간 국제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직, 돈, 콘텐츠 문제를 고민해야 함

- 지방공공부문이 마중물로서 국제교류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지역 차원 ODA 등 활동의 활성화)
- 조직과 콘텐츠 측면은 민간의 주도성이 극대화되어야 함 → 우수 민간국제교류에 대한 보상체계 필요

◆ 도는 시군과 민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함

- 환황해 국제포럼에 시군, 민간의 목소리와 활동을 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 시군의 우수사례(민간활동 포함)에 대한 공식 인정과 표창·포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함

VI.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01. 중국 중심 지방외교?

02. 중국 교류의 특수성, 판시?

01 |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중국 중심의 지방외교?



◆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한중 양자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 한반도 지정학적 지위가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이유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점이기 때문
- 중국과의 교류는 다자간 외교와 양자 외교를 병행해야
- * 8월 귀주성에서 열리는 한중일 3농포럼은 왜 취소되지 않을까

◆ 중국을 국가라기보다는 대륙으로 보자

- 중국 13억 인구(EU 27개국 5억 인구), 지방 행정 위계 4단계(우리나라 3단계)
- 격식 vs. 실용 → 지방외교의 중요성 부각
- 중국은 4-5개 경제권으로 보고 각 경제권과의 교류협력을 별도로 수립해야 함 * 충남은 중국 각 권역별로 파트너를 가져야 함

02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중국 교류 방식의 특수성, 판시[關係]?

◆ 중국 정치사회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판시론의 배경

- 법치주의,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관료나 관리층의 재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큼
- 역사적으로 극심한 내란을 반복 경험하여 이너서클의 형성이 비교적 강함(내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함)

◆ 단기간에 성과를 내자는 조급증에 대한 비판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판시론

- 판시는 개인적 친분 또는 신뢰의 의 중요성 강조 → 다른 나라나 민족은 본질적으로 다른가?
- 상호이익 관계가 아닌 상황(불확실성이 큰 사안)을 개인 판시로 돌파하려는 경향을 합리화 도구로 오용: 민간에서 흔함
- 우리나라 대외교류 공무원 담당자는 변동이 잦은 것에 대한 합리적 비판
- 문제는 전략과 단계적 성과에 대한 목표의식 부재 →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신비화하는 경향으로 빠져

주요 참고 문헌

심의섭, 2006, 『한국지방정부외교론』, 오름출판

양기호, 2010,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논형출판

나도삼 외, 2014,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방안 연구 및 세계도시연구 발행, 서울연구원

박정철, 2014,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성태규 외, 2006,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송두범·홍원표, 2015,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 충남연구원 개원20주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2015.6.12.), 충남연구원

채진원, 2014, 충청남도 서해안비전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 환황해권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과제, 충남연구원

최용환, 2015, 경기도 국제교류기관 설립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홍원표, 2016, 충남의 성장모델은 지속가능한가?, 『충남의 미래 2040』, 그물코

감사합니다.